

建築形態의 類型과 類型學

Type and Typology in Architectural Form

1. 建築形態와 類型의 의미

건축 설계이론에 있어서 類型(type)이라는 말의 의미는 설명되는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 자체가 적용되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설명되는 문화나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類型이란 본래 그리스어의 튀포스(tupos)에서 시작된 말로서,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비유적으로 쓰여서 무언가의 형태적인 특징을 기술하고 분류하기 위한 도구, 즉 사물의 형태를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위한

The image displays musical notation illustrating transformations. The top staff shows a melody with five transformations labeled f^1 through f^5 . The bottom staff shows a melody with transformations labeled q and p , and a note indicating $q \circ p = r$.

⑩ 음례의 변형

金光鉉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by Kim, Kwang-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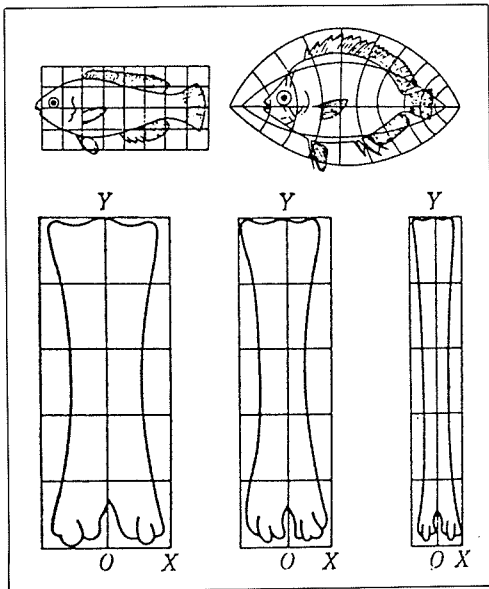
의미로 변화하였다. 類型學(typology)은 이와 같은 유형에 입각하여 사물을 여러가지 型으로 분류하였고 그 型이 만들어내는 전체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구축하는 학문을 말한다. 그러므로 類型이라든가 類型學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지적인 활동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무의식중에 일상생활에도 쓰이고 있다. 이와같이 類型이나 類型學은 일반적으로 지적인 인간활동이라면 보통 쓰이는 사고 체제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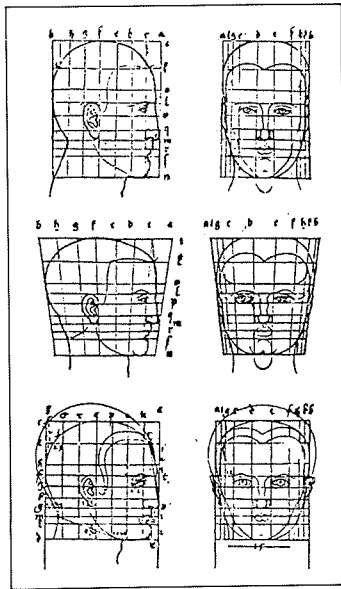
類型은 일반적으로 變形(transformation)과 관련지어 생각되는 수가 많다. 즉 類型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틀이며, 變形은 그 본래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본래의 것과 공통되는 것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類型=基本形이며 變形=展開라는 도식은 음악에서 말하는 主題와 變奏라는 관계와 비슷하다. (그림1)은 옥타브를 구성하는 12개의 반음을 차례대로 배열한 음열에 逆行(p), 回轉(q)등의 변환을 가한 것으로서, 알방 베르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실제로 사용된 선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 형태의 類型은 고유한 형태를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그 형태를 조합함으로써 생기는 몇 가지의 형태와 함께 조합하여 전체로서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유형이란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형이 되는 형태가 규율에 따라 변형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는 그 때 그 때마다 형태를 만들어 낸다는 태도와는 대조를 이룬다.

類型과 變形의 관계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학문의 기초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얼굴이 스펀의 앞뒷면에 비칠 때 像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類型과 變形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한 실예이다. 이와 같은 유형과 변형의 관계는 생물을 비롯하여 자연 형태의 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2)뒤러(Durer)에 의한 人相學의 분류도 결국은 좌표 변환에 의한 변형을 보여주는 것이며(그림 3), 4면체를 중심으로 한 입체의 변형과 그 분류(그림 4)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그림들에서 보는 좌표 변환에 의한 변형은 유아용 도형 연습(그림 5)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이들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유형과 변형의 관계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인 활동의 기본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 나라의 풍수지리설에서 보는 여러 도형들도 유형의 좋은 실례이다.) (그림 6)

그러면 건축 형태에 있어서 類型과 變形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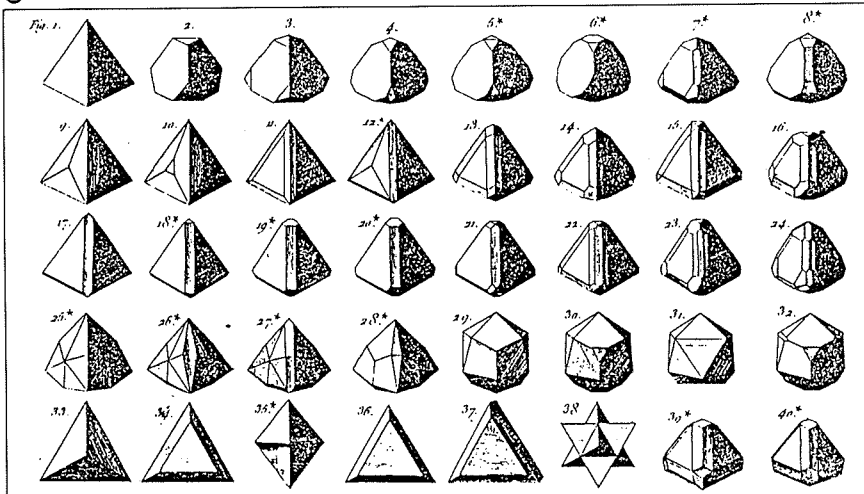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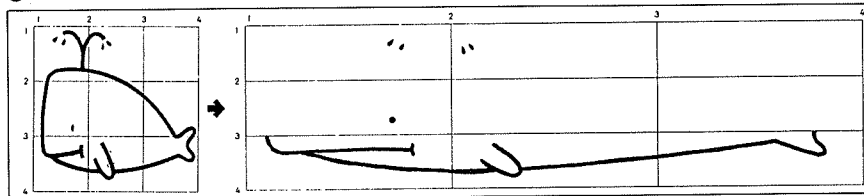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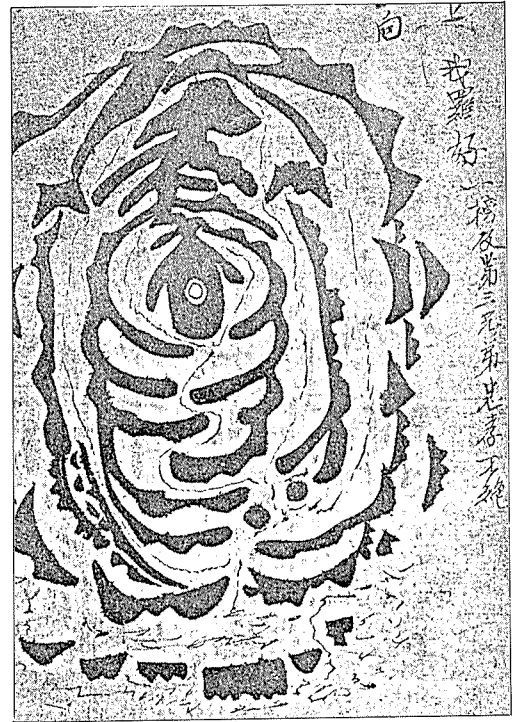
- 2 생물 형태의 變形
- 3 뒤라에 의한 人相學
- 4 4면체의 變形
- 5 유아용 도형 연습
- 6 풍수 지리설의 유형



4



5



6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건축가 옹거스(Ungers)는 자신의 저서 「主題로서의 建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형태의 變形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7). 먼저 고전 건축의 이론대로 오더의 기둥은 나무였듯이 나무의 그루터기가 기둥의 자연적인 생태를 나타내지만(a), 그 중간 단계에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기둥이 성립하고(b), 예술적인 단계에서는 완전한 독립 기둥으로 존재한다.(c). 나아가 이 기둥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써 완성되며(d), 상부가 장식됨으로써 구축적인 단계에 이르고(e), 다시 기둥의 柱身이 인체로 치환됨으로써 의인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f). 즉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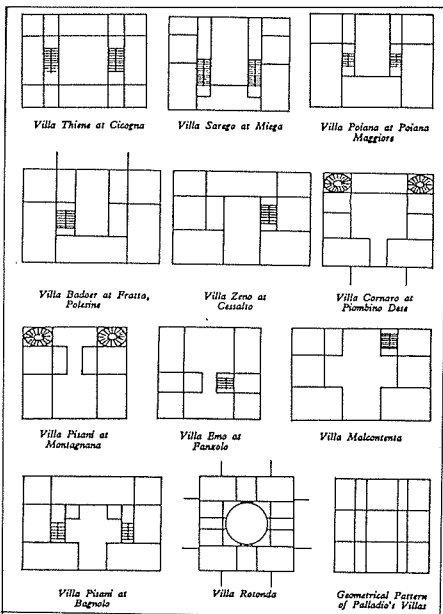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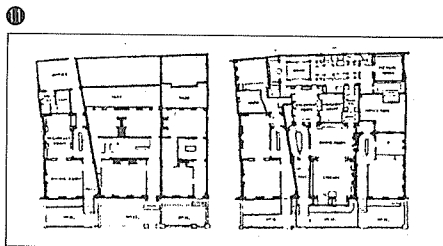
일련의 과정은 형태가 자연으로부터 예술의 단계를 거쳐 형이상학적인 단계로 변형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이집트 신전에서 보는 기둥의 변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기둥의 하부는 대지의 견고함, 중간 부분에는 유기적인 요소가, 그리고 상부에는 이성적이며 추상적인 요소가 서로 다른 형태를 이루며 위아래로 중첩되어 있다. (그림8) 또 싱켈(Schinkel)의 아크로폴리스 계획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몇 가지의 형태적 변형이 층을 이루며 나타나 있다. (그림9) 동시에 類型과 變形의 관계는 이상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단계에서만

아니라, 건축과 도시의 점진적인 변화 자체에서도 경험된다. 예를 들어 디오클라티아누스宮의 배치에서 보는 배치의 변화나 (그림 10), 존 소운(John Soane)의 박물관 평면의 변화 (그림 11)등도 결국은 類型과 變形의 관계가 얼마나 건축과 도시 형태의 중심적인 개념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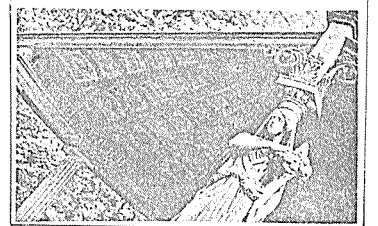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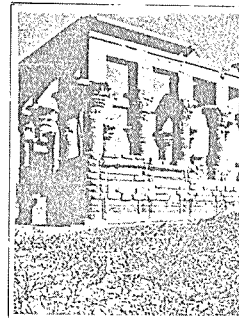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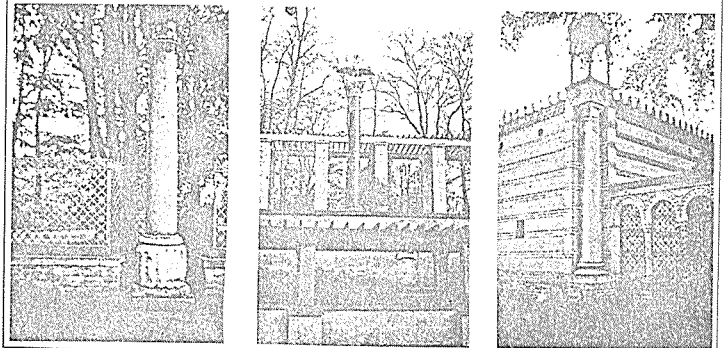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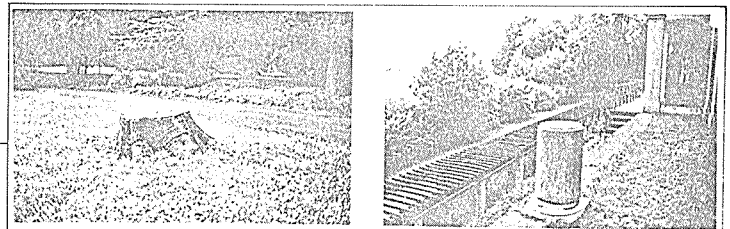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類型에 대한 사고는 건축가 개인의 창작 태도와 깊은 관계를 갖는다. 팔라디오의 빌라들에 대한 비트기우버(Wittkower)의 분석은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그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팔라디오 자신이 9분할이라는 형태의

- ⑦ 기둥 형태의 변형
- ⑧ 이집트 신전의 기둥 변형
- ⑨ 상켈의 아크로폴리스 계획
- ⑩ 디오클라티아누스궁 배치
- ⑪ 존 소운의 박물관
- ⑫ 팔라디오 빌라의 유형 (비트카우버에 의함)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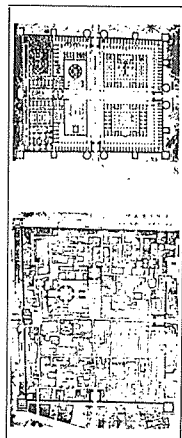
기본형을 설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가를 자신의 문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림 12> 이와 함께 콜린 로우(Colin Rowe)에 의한 팔라디오와 르 코르뷔제의 비교 분석도 어떤 의미에서는 類型과 變形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3> 그는 빌라 말콘텐타와 빌라 가르셰가 각각 수직적 입면 : 수평적 입면, 구심적 평면 : 원심적 평면, 대지의 밀착 : 대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로는 2:1:2:1:2로 세로는 3분할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르 코르뷔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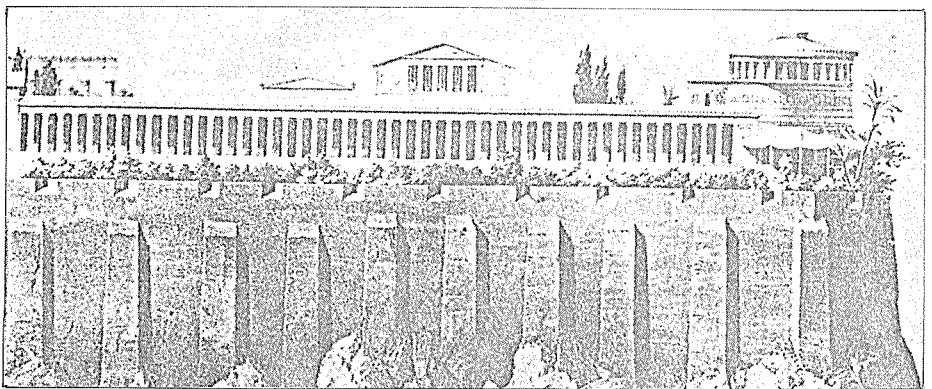
⑩

⑧

⑦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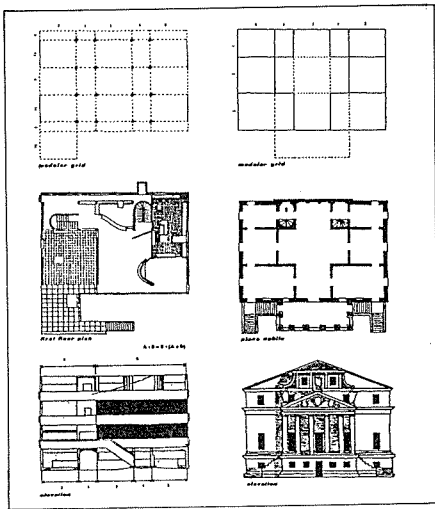


⑨

의도적으로 팔라디오의 도식을 類型으로 삼고 중심성과 축성을 애매하게 함으로써, 고전적인 구성 방법을 근대 건축의 새로운 형태 체계로 변형하려 했다는 것이 된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유형을 보는 입장에서 서로 대비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유형과 변형의 관계에서 새로운 건축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이 9분할 형식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나와 팔라디오와 그를 계승한 수많은 후계자들에 의해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건축의 기본형이 되어왔다는 사실은 類型과 變形이 얼마나 중요한 건축 형태의 원리로 작용하여 왔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트카우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類型과 變形의 의미를 결론짓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의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었던 것이며,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 파사드들을 보면 그 배후에 무한히 풍부한 사상이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으나, 이와 함께 그것들 모두가 동일한 기본형에서 생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대 도시에는 독창성이 풍부한 건축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획일적이면서도 동시에 혼돈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類型과 變形이



13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도시에서는 건물 하나 하나는 억제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풍부하고 안정된 인상을 갖게 된다. <그림 14> 그러나 이것은 곧 類型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며, 형태와 공간 창조 기초적인 작업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역사적인 도시의 평면도를 보면 마치 집합 주택의 평면도를 보는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로 비슷한 평면 형태가 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건물들이 따로따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커다란 집합 주택을 형성하듯이 무언가의 공통적인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건축의 이론은 건축과 도시를 각각 부분과 전체로 여기고, 건축물을 동일한 형태의 입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도시 속에서는 건축이 전원 속에서 있는 집처럼 따로 독립하여 있을 수는 없다. 순서로 보면 하나 하나의 건축이 먼저 생기고 그것이 모여 도시를 이루게 되지만, 일단 도시가 형성되면 건축의 유형은 전체로서의 도시와 대응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건축의 유형속에 도시적 요소가 반영된다.



15

이와 같이 類型學은 원칙적으로 기하학적인 공간 단위가 모여 건물의 단위를 이루며, 다시 그 건물들이 모여 街區를 이루며 街區는 도시를 형성하고, 그 인공적인 도시는 주변의 환경(자연)과 함께 유기적인 도시 풍경을 만들어 낸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2. 類型理論의 變化

앤소니 비들러(Anthony Vidler)는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類型理論이 이념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설명하고, 최근의 유형에 대한 사고를 합쳐서 세가지의 類型學을 서술하고 있다.²⁾ 하나는 고대의 모방이나 절대미를 부정하고 유형이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설계가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하여 기원을 따지는 이상적인 유형이론으로서, 선형적으로 완전한 형태가 자연과 건축 속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건축 이론가 콰트레메르 드 칸시(Quatremère de Quincy)였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의 영원한 유형은 숲속에 나무로 만들어진 「원시적 오두막집」(그림 15)의 구조적인 원리였으며, 그리스의 사원이야말로 이러한 유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 「원시적 오두막집」은 이미 로제(Laugier)가

- 13 말콘테타와 가르쉐의 비교(쿨린 로우에 의함)
- 14 로마의 도시 구조
- 15 「원시적 오두막집」(로제)

계몽주의의 이성적인 철학에 근거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각각의 건축적 요소는 그 기원을 자연의 이성적인 질서에 두고 있으며, 자연의 질서는 바로 유형으로서의 요소가 결합되는 기하학을 통해 표현된다고 보았다.

다른 하나는 당시 자연 과학에서 나타난 유형학의 영향을 받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건물의 종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건축의 요소나 조합의 법칙, 새로이 생겨난 건물 유형의 특징적인 형태 등은 모두 이와같은 유형과 관련된 것이다. 이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폴리테크닉의 건축학 교수인 듀랑(Durand)의 유형 이론으로서, 그는 귀납적으로 결정된 프로그램과 이에 의한 요소와 규칙의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림 16>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 두가지의 유형 이론이 구조와 프로그램이라는 합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결합되었다. (라브루스테나 비올레르 디 등) 한편 19세기말에는 유기체에 대한 은유와 기계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기능주의의 이론을 밑받침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근대 건축 운동은 이 유형의 이론들을 대량 생산을 위한 표준화와 규격화라는 문제로 정착시켜 나갔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계 또는 기술의 산물을 중시한 기술주의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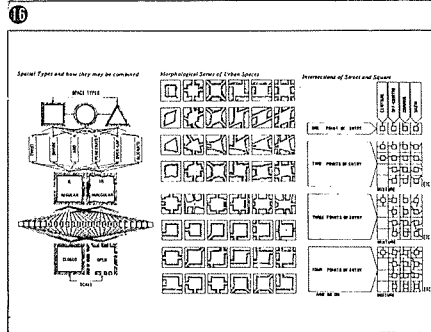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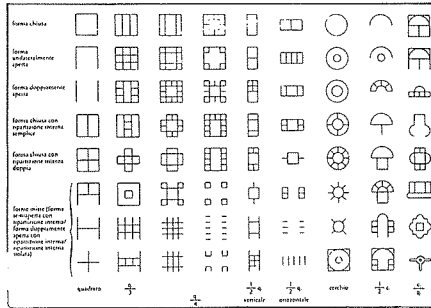
이어서 비들러는 위의 두 가지 類型學이 건축을 각각 추상적인 자연과 기술적인 유토피아라는 건축 밖의 것으로 논의하였음을 비판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1970년대 합리주의자들의 유형학을 추가시키고 있다. 그는 이것을 「第3의 類型學」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원기등과 같은 건축의 요소나 전통적인 주택 단위, 그리고 광장이나 가로와 같은 도시 공간을 역사적인 도시로부터 추출하고, 이를 유형으로 분류하는 건축의 형태 이론을 말한다. 이 합리주의자들의 유형학은 건축 요소의 기하학적 성격을 건축의 내재적인 측면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가지 유형학과 구별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형태와 역사란 연속적인

- 16 듀랑에 의한 평면 구성의 유형
- 17 「세계극장」(알도 로시)
- 18 광장과 가로의 유형학(툼 크리에)
- 19 에히터나하 계획(레온 크리에)

것이며, 도시란 이러한 연속성이 나타나는
 場이다. 그러므로 도시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단편들은 과거로부터 지녀 온 형태의 의미,
 특정한 단편이 선택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유형과 교차하여 나타나는 의미, 그리고
 이러한 단편들이 새로운 문맥 안에서 재구성될
 때 생기는 의미 등 세 가지 레벨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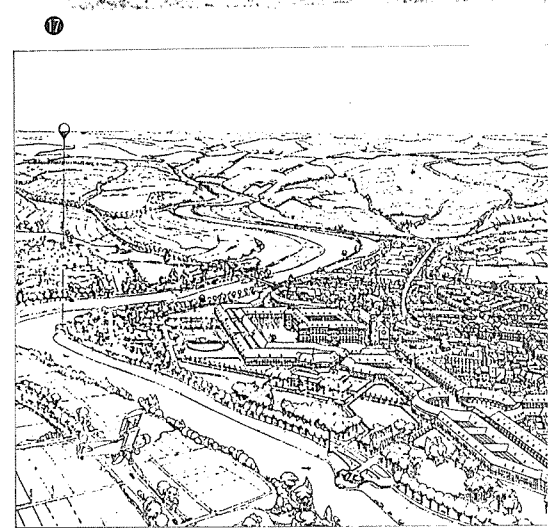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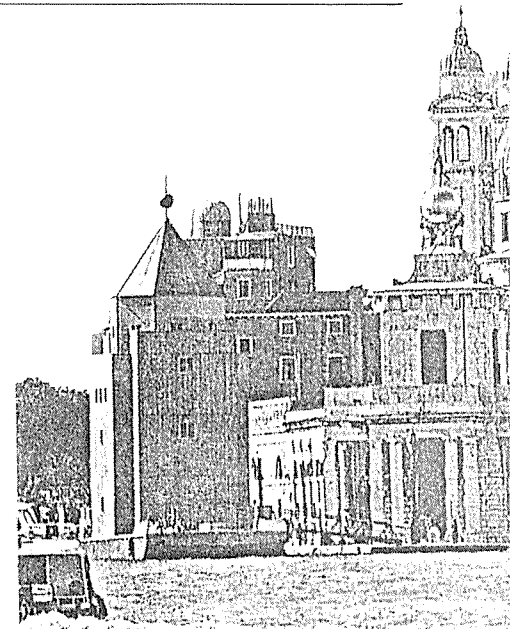
1970년대부터 시작된 유형학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건축의 유형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구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파악된 건축의 역사로부터 건축의
 원형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주관적인 기억 속에서 건축의
 형태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도
 로시(Aldo Rossi)의 「세계극장」(그림 17)은
 추상적이며 간결한 형태의 기건물과 같은
 인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시에 그것은
 바다를 향하여 돌출된 등대와 같은
 강렬하면서도 다소 감상적인 인상을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의 기억과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뉴먼트로서의 요소들은
 종교 건축의 신비스러운 공간일 때도 있으며,
 운하에 연한 구조물과 같은 집합주택이거나
 조용히 연속하는 아케이드이거나 또는 성인의
 입상일 때도 있다. 이 때 과거의 건축물이
 모델로서 선택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역사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억으로서의 역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최근의 중요한 예로 크리에(Krier) 형제의
 유형학이 있다. 톼 크리에에는 「都市空間」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광장과 가로라는 도시 내의
 외부 공간을 파악하기 위한 유형학을
 제시하고, 그 외부 공간을 도시의 공간의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생각하였다.
 (그림 18). 그러나 셰인(Grahame Shane)도
 지적하였듯이 그가 제안하는 광장과 가로의
 요소는 독자적인 것일 뿐, 주변의 문맥과
 관계를 갖지 못한 채 건축 단위가 집합하여
 도시의 공간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논리는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광장과 가로의
 유형화는 도면상의 형태 분류에만 머물러



18 있고, 각 유형의 의미는 고려되어 있지
 못하다.³⁾
 동생인 레온 크리에에는 복잡한 역사적인
 도시 에히터나하 계획(Echternach, <그림
 19>)를 통하여 기존의 건물 속에 내재하는
 유형학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이 계획에서는 새로
 개발된 부분의 추상성과 역사적인 지구의
 구상성이 서로 대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조감도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한, 이
 계획은 자연과 결합된 비기하학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즉 그는 건축에서의 기하학적인
 유형학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도시 전체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중세 도시와 같은 경관을
 자아냄으로써, 통제된 질서로부터
 픽취레스크한 풍경을 지향하는 유형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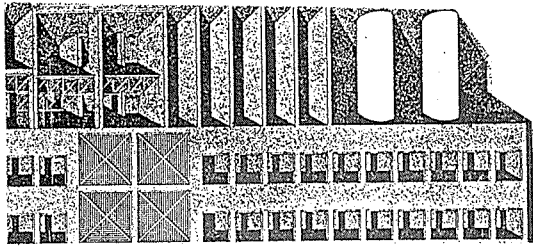
한편 이와 같은 건축과 도시에 대한 최근의
 몇 가지 논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
 類型과 類型學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알란
 코훈(Alan Colquhoun)은 기본적으로 건축의
 역사를 영원한 가치의 저장고로 보는 규범적
 견해와, 문화적인 가치가 진화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상대적인 견해로 나누고,
 최근에 논의되는 유형학 및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품은 이 두 가지의 유형의 개념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⁴⁾ 물론
 이 두가지 태도는 모두 건축 형태의 의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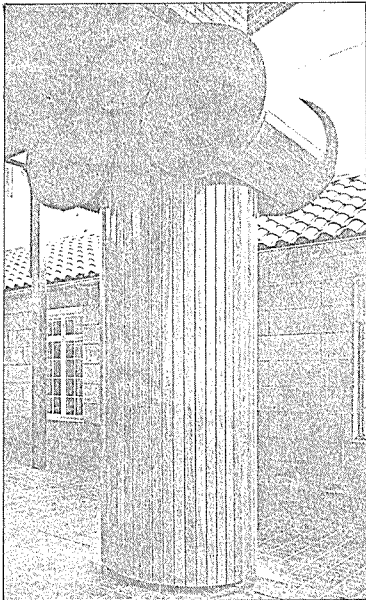
19 이전에 성립된 유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규범적인 견해는 실제로 지어지는
 하나 하나의 건물은 무수히 변하지만 그
 밑에는 변하지 않는 형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반면에 상대적인 견해는
 역사적인 유산이란 단편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며, 그 의미는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방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는 유형을 발생적인
 것으로 보며, 후자는 유형을 이미지 또는
 양식의 절충적인 선택으로 본다. 예를 들면
 알도 로시의 갈라라테제 아파트(Gallaratese,
 <그림 20>)에서 보는 기둥은 논리적으로
 적용된 건축요소 그 자체이지만, 벤투리의
 오벌린 대학 미술관(Oberlin, <그림 21>)에서
 보는 기둥은 圖像學的이며 장식적인
 반복이라는 점에서 건축 형태로서의 유형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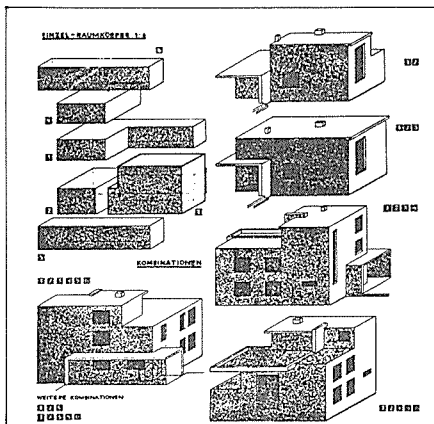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類型學은
 다양하고 분산적이며 유연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성을 버린 채
 세계 어디에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언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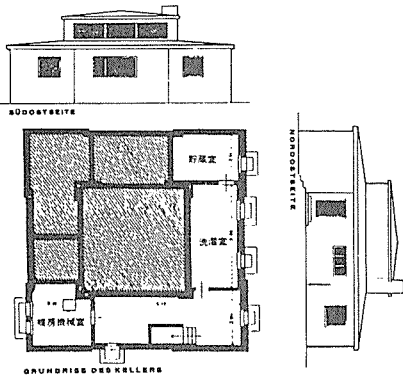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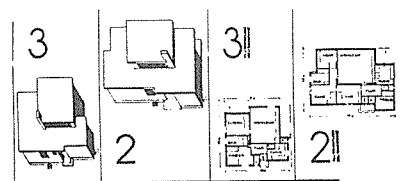
21



22



23



24

추구한 근대 건축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그 類型學은 한편으로는 이미 주어진 기본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정된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계속적인 변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그것은 기존 체계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재생한다는 두 가지의 모멘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에 논의되는 類型學은 이념상으로는 보편성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독특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3. 近代建築의 類型學

근대 건축은 역사와 선례로서의 類型을 거부하고, 새로운 산업화 사회의 이미지를 이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대량 생산이란 동일한 것의 반복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근대 건축은 그 내부에 모델의 재생산이라는 새로운 의미의 類型을 성립시킬 수 밖에 없었다.

類型化(Typisierung)가 문제가 된 것은 1914년 獨逸工作聯盟의 전시회에서 행한 헤르만 무테지우스(Hermann Muthesius)의 강연에서였다. 그는 건축을 포함한 공예품의 유형화에 관한 10개항의 테마를 제시하고, 「건축과 함께 모든 工作聯盟의 창조 영역은 유형화를 향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만 문화가 조화로운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의의를 다시금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예술과 공업의 융화를 통하여 대량 생산한다는 유형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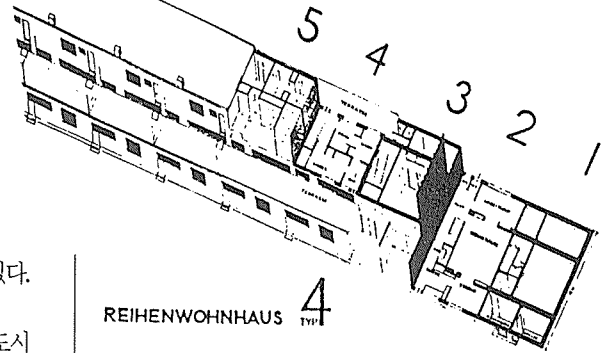
실험 공방의 성격을 띤 바우하우스의 수공업과 공업을 연결하여 공업 생산의 틀을 만들고, 이를 위하여 예술품의 類型化를 최대의 과제로 삼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그로피우스는 처음에는 무테지우스의 類型化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하였으나, 바우하우스에 있어서는 이것을 주창한 인물이 되었다. 그로피우스는 구체적인 건축의 유형화를 위하여 2층분의 높이를 갖는 거실의 입체 1을 중심으로 하고, 현관, 부엌 등의 주택 설비와 2개의 침실이 있는 L자형의 입체 2를 결합하여 이를 최소의 주택으로 삼은 다음, 다시 3-6의 입체를 결합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림 22> 그리고 이와

비슷한 유형화의 실험은 암 호른 주택(그림 23) 등에 나타나 있으며, 아돌프 마이어(Adolf Meyer)나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 몰나르(Molnar)의 주택 계획안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그림 24, 25> 이와 같이 바우하우스에 있어서 건축의 類型學은 단위 공간을 단순화하고 주택을 기계와 같은 조직체로 생각한 다음, 건축부품을 규격화하여 주택의 공업생산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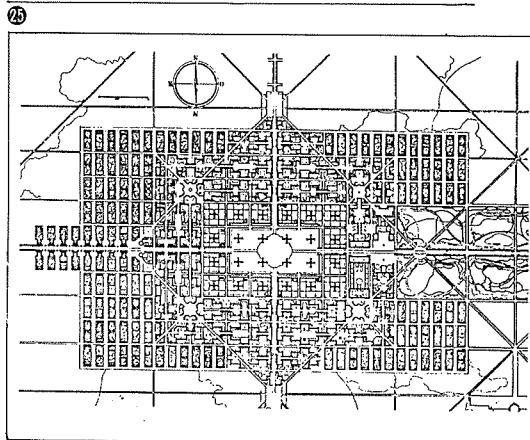
주로 주택의 대량 생산과 관련되어 전개된 유형의 개념은 이른바 「最小限住居」에서 본격화된다. 제2회 CIAM 회의의 주제이기도 하였던 이 문제는 그 제안의 대부분이 보여 주듯이 주거를 대규모로 집중화하여 건설하기 위하여 규격화, 표준화된 주거 단위의 유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알렉산더 클라인(Alexander Klein)이 제안한 주거 단위의 유형학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의 주거 단위로부터 점차 대규모로 유형의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 준 것이었다. <그림 26>

典型이나 標準이라는 의미에서 類型이 논의되고, 공간의 조직화하기보다는 문화의 은유로 이해한 근대 건축의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르 코르뷔제이다. 그가 말하는 「類型(또는 定型)으로서의 오브제」(Objet-Type)란 컵, 기타, 타자기, 기선 등과 같이 기계에 의하여 대량 생산되는 표준품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이것들은 근대라는 시대의 본질적인 가치를 내포한 기하학적인 사물이 된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기계 시대의 규범으로 보고, 이에 포함된 이념을 모든 대상에 적용하려 하였다. 그의 시트로안 주택은 시트로안 자동차와 같이 양산되어야 할 유형으로서의 주택(Maison-Type)이며, 그것은 유형으로서의 색채(Coleur-Type)인 백색을 기조로 하고, 유형으로서의 각도(Angle-Type)인 직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새로운 근대 정신에 고취된 지적인 인간이 유형으로서의 거주자(Habitant-Type)로서 살며, 시트로안 주택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된 「現代都市」는 유형으로서의 도시(Ville-Type)로서 양산되어 유럽 전역에 나타나도록 구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시는 도구로서의 도시이며, 살고 일하며 쉬기 위한 기계이기도 한 것이다.



REIHENWOHNHAUS 4



- 20 길라라테제 아파트(알도 로시)
- 21 오버린 대학 미술관(벤틀리)
- 22 그로피우스의 類型系列 住宅
- 23 암 호른 주택(무헤)
- 24 1세대 주택의 변형
- 25 선형 집합 주택 계획(물나르)
- 26 알렉산더 클라인의 주택 유형
- 27 「300만을 위한 현대도시」(르 코르뷔제)
- 28 산 출리안 지구의 분석(무라토리)

학파의「建築類型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과제로 삼고 있다.(1)건축의 원형이란 역사적인 변화나 건축의 형식적인 변천 속에서 언제나 계승되어 온 것으로 보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건축 형태의 기본형을 규명한다. (2)건축을 類型으로 분류하여 그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3)도시 조직을 분석하여 도시의 형성 과정을 파악한다. (4)건축의 유형에서 전개한 조직체에 대한 생각을 지형, 도로, 도시의 입지

이와 같이 기계와 기하학은 과학 기술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예술의 지배 법칙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며, 또 그것들은 數와 分類 그리고 秩序라는 의미의 은유적인 성질에 의하여 類型(定型)化된다.

르 코르뷔제의 「300만을 위한 현대 도시」(그림 27)는 13개의 계급 제도와 그 비례 체계라는 푸리에(Fourier)의 이상사회이론에 입각하여 분류, 통합된 공동체이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그 구상한 피라미드의 사회 구조가 도시의 평면에 투영되어 있으며 개인과 집단의 공동체로서는 푸리에의 이상적 공동체인

팔란스테레(Phalanstère)와 그가 여행 중에 경험한 엠마 수도원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동의 배치는 分類學을, 지구의 분리는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의 공업 도시를, 주동의 단위는 자신이 구상한 이부블 빌라 타입(Immeuble villa type)을, 방사상의 축은 보자르의 축 등을 각각 유형으로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 계획안에 나타난 또 다른 유형의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共同體	機械(機能)	(type)(類型 또는 定型)
言語	分類	關係·對立	隱喻
數學	統合, 比例	普遍	標準
幾何學	階層(位階)	近代技術	軸性, 古代寺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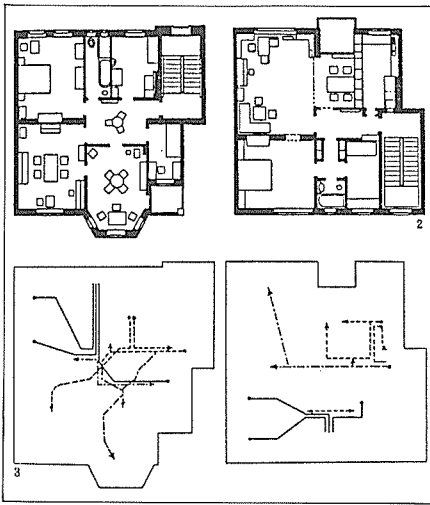
4. 무라토리 學派의 「建築類型學」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무라토리 학파에 의하여「建築類型」(Tipo Edilizio)이라 불리는 방법이 역사적 건축물과 도시의 보존을 연구하기 위하여 형성되었다. 이 유형학은 페브스너(Pevsner)와 같이 공공 건축 등 건축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분류하는 종래의 방법과는 다르며, 주택 건축 특히 도시의 밀집 주거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경관이라는 피상적인 차원으로 도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본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의 구성, 집합의 방법, 도시 조직의 형성 방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도시의 유기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그 구성 단위의 건축을 자연적, 경제적, 기술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어떤 건물이더라도 일정한 구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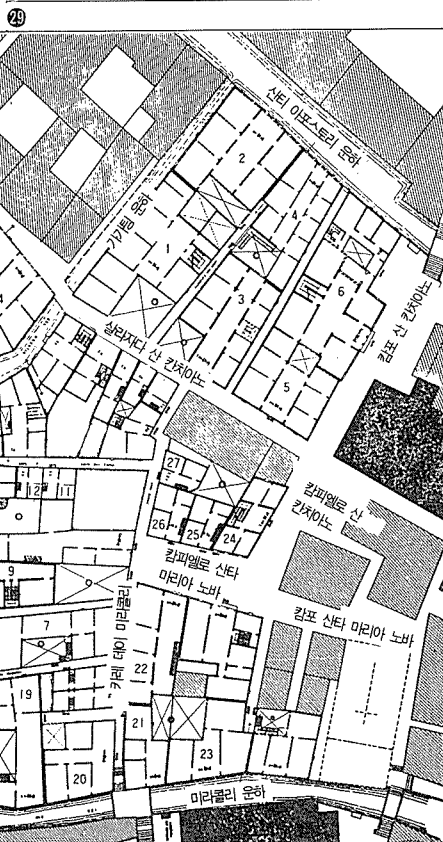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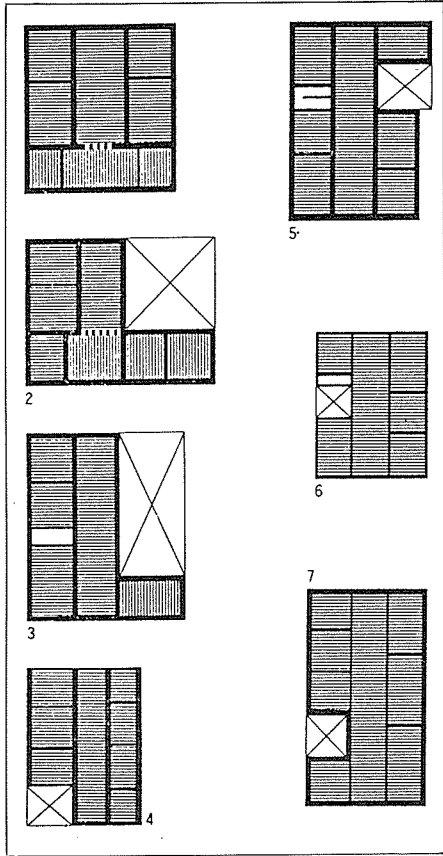
「建築類型」(Tipo Edilizio)이라 부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형하며 그때마다 도시 조직을 새롭게 해 간다. 즉 건축유형에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가 현재의 도시조직 속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축유형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다른 유형으로 변화해 나가는가를 동적으로 해석해 가는 방법이 바로 「建築類型學」이다.

창시자 사베리오 무라토리(Saverio Muratori)는 「베네치아의 실제적 도시사를 위한 연구」와 같은 저서를 통하여 역사적인



관계를 잃은 근대와 도시와 건축을 비판하고,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면서 건축과 도시에 내재하는 논리를 현대의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추구하였다. 또 그는 종래의 도시사는 그 시대의 문화적 산물인 도시를 어디까지나 조감도적으로 바라보고 도로의 체계나 광장, 교회나 시청사와 같은 모뉴먼트를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었으며, 그 내부의 조직이나 구조, 더우기 오늘날의 도시를 구성하는 주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규명하지는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그는 기존의 건물들이 파악 있는 역사 지구에 실제로 들어가 건물과 건물, 건물과 광장과 길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습, 즉 건축의 집합 형식과 건물과 외부 공간의 결합 관계를 잃고 도시의 조직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생활의 다양한 레벨에서 대응하고 있는 주택으로부터 지구, 도시 및 지역에 이르는 공간의 조직화를 종래의 도시 연구에 결여되었던 연속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리에 입각한 무라토리



등과 관련시켜 지역의 형성과정을 규명한다.

무라토리는 먼저 베네치아의 라그나라는 섬에 최초로 형성된 주거핵(「原初 라그나 조직」)이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장하는 도시에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계속 유지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이 조직은 등을 맞댄 좁고 긴 주택군이 운하에 직교하고 같은 간격의 골목길로 나뉘면서 물가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귀족의 주거로 구성된 「중정(corte)에 의한 조직」과 고딕 시대의 도시화로 나타난 「길(calle)에 의한 조직」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낸 원리를 유형적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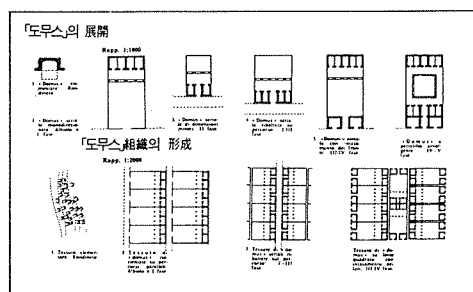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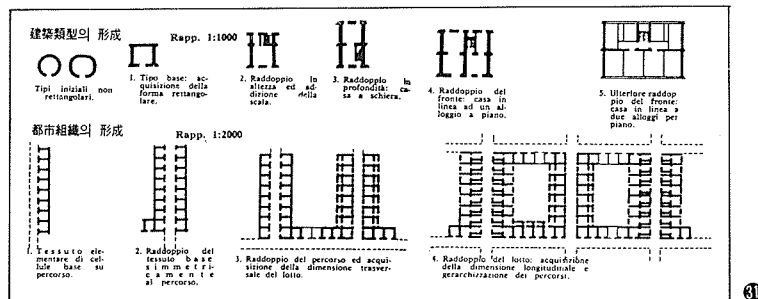
예를 들어 그는 이와같은 방법을 따라 산 줄리안 지구(S.Zulian, <그림 28>)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 지구의 분석을 통하여 9세기에는 산 바토 운하를 따라 장인들의 주거지가 연속적으로 형성되었으나, 10세기에는 구엘라 운하와 구엘라 광장을 따라 각각 코르테의 귀족 주택군과 장인의 주거군이 형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11~13세기에는 내부의 보도와 서쪽의 페라리 운하를 따라 장인과 상인의 주거가 이루어졌으나, 14~15세기에는 전체가 재편성되면서 귀족 주택의 넓은 코르테가 공유 공간으로 바뀌거나 동서, 남북의 평행한 길이 정비되어 갔음을 조직적으로 분석하면서, 오늘 날의 베네치아 중심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유형적으로 파악하였다.

무라토리의 조수였던 마레토(Mareto)는 귀족 주택(팔라쑈)의 역사적인 변천을 도시적인 맥락에서 분석할 뿐 아니라, 평면 형식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시대의 건축 형성을 고찰함으로써 도시 형성의 메카니즘을 추구하였다. <그림 29> 「建築類型學」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가 행한 많은 연구 중에서 고딕 시대의 일반 주택 지구를 관찰하는 데 중요한 산 칸치아노 지구(S. Canciano, <그림 30>)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 이 지구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운하로 나뉘어 있었으나, 후에 이 운하가 매몰되면서 살리자다 산 칸치아노와 칼레 데이 미라콜리가 각각 산티 아포스티올리 운하와 산 조반니 그리소스토모 운하에 평행하게 정비되었으며, 그 사이에는 운하와 도로를 잇는 50m깊이의 주택군이 형성되었다. 주택 1과 2, 3과 4은 등을 맞댄 L자형 주택으로 코너에 코르테를 두고 있다. 내부의 도로에 면한 1과 3은 당시 발달된 도시 공간을 고려한 본격적인 팔라쑈라면, 2와 4는 수륙 양쪽의 어프로우치를 갖는 전통적 베네치아의 주택으로서 여전히 중앙에 넓은 방을 둔 3列構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5와 6은 후에 외관과 내부가 변경된 것으로, 6은 축선을 90도 회전시켜 파사드가 광장쪽으로 향하고 있다. 칼레 데이



㉘ 마레토에 의한 건축유형의 변천

- (1. 불력형(비잔틴))
- 2~3. L형(후기 비잔틴)
4. L형(14세기 고딕 건축)
- 5~7. C형(15세기 고딕 건축)

㉙ 산 칸치아노 지구의 분석(마레토)

- ㉚ 건축 유형과 도시 조직의 형성(카니자)
- ㉛ 코모에서의 도무스형 주택의 형성(카니자)

미라콜리와 산 조반니 그리소스토모 운하 사이의 계획은 그 조직이 다소 긴밀하지 못하고 후에 개조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의 계획과 비슷하다. 7~8, 9~10, 11~13은 사적인 골목길로 분리되어 있다. 9~10은 개조된 것이지만 본래는 두 동이 등을 맞댄 것이었다. 9는 코너에 코크테를 가진 L자형으로 광장에 면하고 있다. 14~15는 운하의 굴곡을 유지하면서 대칭형을 살린 가장 도시적인 건축으로서, 운하와 길에서의 접근이 고려된 것이다. 동시에 이곳에는 중산서민층의 소주택이 함께 건설되었다. (11~13, 16등)

18은 운하쪽에서는 팔라쪼풍의 3列構成이지만 내부는 c자형의 2列構成이며, 계단은 19의 코르테에 접하여 채광을 해결하고 있다. 21~23의 고딕 건축군도 다소 불규칙하나 코르테를 이용하여 고밀도화한 것이며, 24~27도 마찬가지로 2列構成의 서민주택이다. (한편「建築類型學」의 이름을 확립한 카니지아(Caniggia) 등의 노력도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그림 31과 32)의 개념도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이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다)

이와 같이 건축유형학과 그 집합 관계는 건축 형태의 논리적인 변형 과정과 도시조직의 규명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 조직의 해명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또 그것은 역사적인 연속성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도시와 건축물의 형태를 계승함으로써, 건축의 형태를 하나의 유형과 변형으로 보고, 도시를 건축의 다양한 형태들이 문화적인 생명력을 가지면서 직접되는 하나의 織物(tessuto)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5. 알도 로시의 「建築類型學」

근대 건축을 재검토하기 위한 알도 로시의 類型化에 대한 시도는 건축 형태의 의미에 관한 어프로치로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합리주의적인 구축 속에서도 키리코(Chirico)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건축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그의 이론은 「都市의 建築」(1966)에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건축의 독자적인 양상을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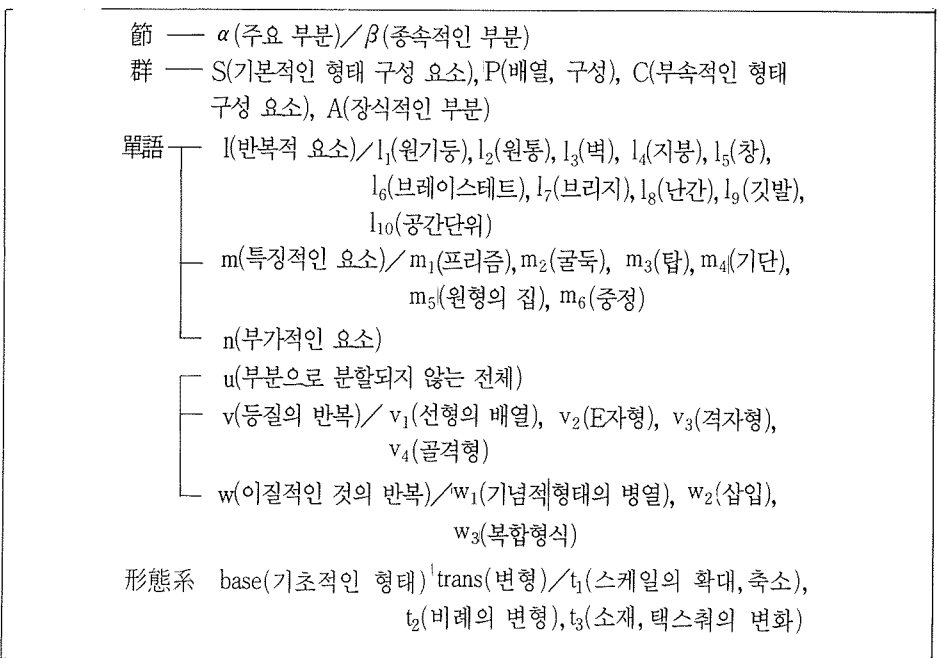
추구하려는 데 특징이 있다. 즉 그에 의하면 건축은 도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며, 도시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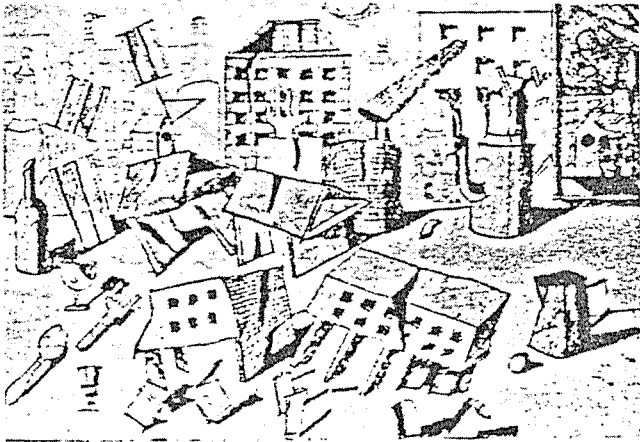
로시는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유형학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는 도시를 구축하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도시를 경험하기 위한 시작이며, 도시의 배경이 되는 건축을 독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곧 건축은 하나 하나의 특징을 넘어 존재하는 일반적인 유형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나 기억, 의미를 해독하는 단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시는 여러 유형의 건축이 집합되어 있는 상태나 모뉴먼트 그리고 장소가 건축에 투영되어 있음을 규명하려 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이와 같은 도시의 건축이 지나는 유형학은 근대 건축의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규범을 갖는 자율적인 건축을 겨냥한 것이다. 즉 그의 유형학은 건축 형태를 표현을 위한 언어와 같은 것이며, 건축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으로」말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로시의 類型學的 방법은 도시와의 관계에서 요소를 추출하고, 그 속에서 요소를 선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견과 선택의 과정이 곧 그가 건축 형태를 형성해 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본판티(Bonfanti)는 로시의 다양한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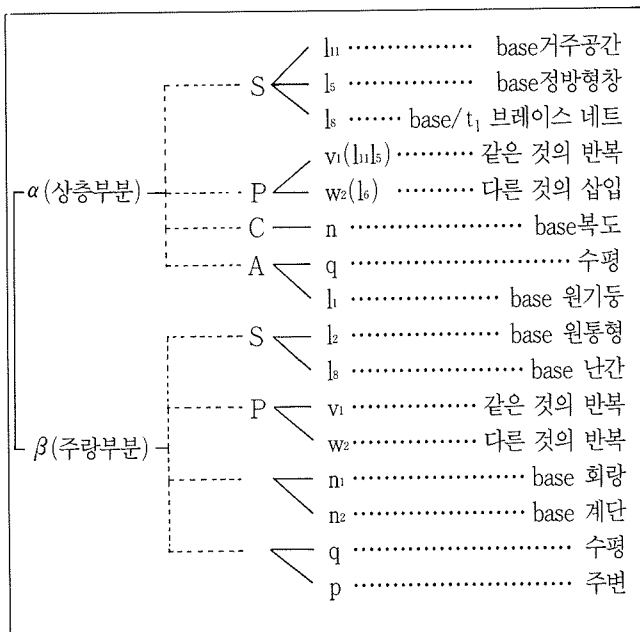
형태의 요소를 斷片(part, 다른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 部分(Part, 보다 복잡한 요소로서 건축 자체와 일치할 수도 있는 요소), 감마(gamma, 상황을 재현할 가능성을 갖춘 특이한 요소)등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동시에 그는 요소를 도시와 건축의 관계로부터 기하학적, 구축적, 역사적인 변형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있다.⁶⁾ 이것은 건축에 대한 도시의 역할을 건축의 집합형태, 모뉴먼트, 장소와 관련지어 검토한 로씨의 태도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산로코 계획은 가구 형태와의 유추이고, 모데나 공동 묘지의 굴뚝 요소는 블레이 작품을 변형시킨 것이며, 산사바 중학교의 기단은 전통적인 소재의 인용이다.

알도 로시의 피터 아이젠만과 같이 기본적인 형태를 계속 변형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요소의 레퍼토리로부터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건축 형태에서 보는 유형학적인 방법은 변형문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스템 문법에 가깝다. 그런데 시스템 문법에서는 文(sentence), 節(claus), 群(group), 語(word), 形態系(morheme)라는 단위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는다. 예를 들어 群의 단위에는 주어(S), 서술어(P), 보어(C), 부속어(A)의 요소가 포함된다. 건축 형태의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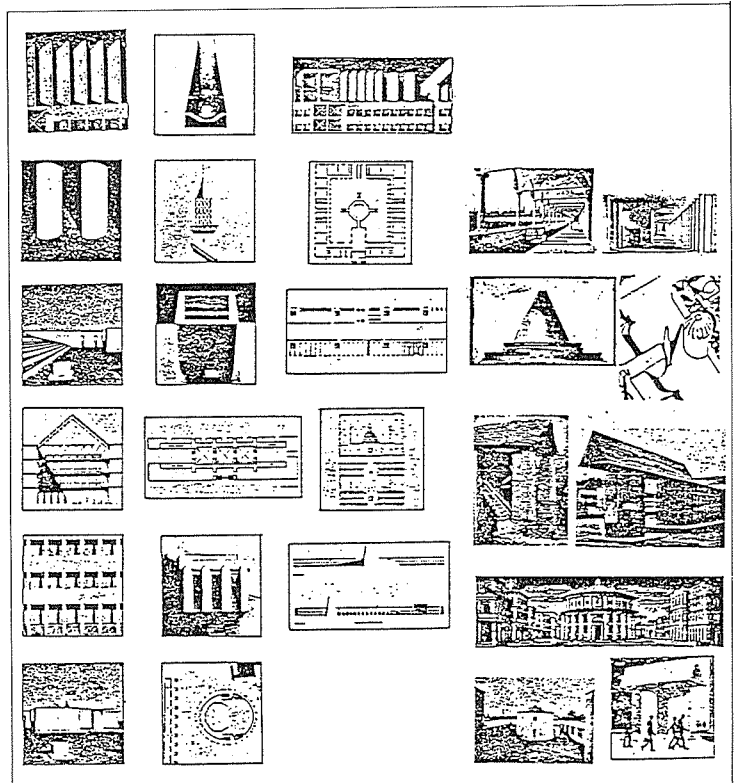


36

경우에는 P를 배열과 구성, A를 수직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알도 로시의 건축 형태에 나타나는 요소의 레파토리를 정리하면 요소가 기호로서 반복해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그가 도시와의 관계에서 발견해 온 유형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여유가 없으므로 갈라라테제의 집합 주택만을 예로 들어 분석한다. 갈라라테제의 경우는 1층의 주랑(β)과 상층의 거주 공간(α)으로 구성되며, 선형으로 연속하는 열주와 정방향의 창은 각각 거대한 원통형과 브레이스 네트로 분절되어 공간에 리듬을 주고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3)과 같다.

- 38 갈라라테제 집합 주택의 건축유형분석
- 39 알도 로시의 건축유형과 유추
- 35 「This is a Long Time Ago」 (알도도시)



39

그러나 이와 같이 형태에 대하여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 작품이 키리코풍의 초현실주의적인 풍경과 함께 열주 사이에서 일상생활의 친밀감이 생기는 것은 웬일일까? 그것은 그가 사용하는 유형학의 개념이 도시와 건축의 類推(analogy)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축에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은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자신의 건축을 연상 작용, 교감 작용, 유추 작용이라는 광범위한 문맥 속에서,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보고 있다」는 그의 말과 같이 유형과 유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34)

이렇게 단편화된 기호는 유추를 통해 여러

가지 이미지나 기억을 환기시켜 주면서 다른 단편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간다. 로시의 환화인「This is a Long Time Ago」(그림 35)는 그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요소를 단편적으로 콜라주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수많은 요소가 얼핏 보아 무질서하게 하나의 연극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타나는 키리코풍의 향수는 최종적으로는 다이내믹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알도 로시는 일반적인 건축 형태의 類型을 추구하지만, 이와는 전혀 반대로 결국은 類推에 근거함으로써 스스로 억제하고 있는 자신의 감성과 이성을 현실의 문맥 속에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Rudolf Wittkower: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Norton, 1971, p.76
 2)Anthony Vidler: "The Third Typology", Oppositions, 7607
 3)Grahame Shane:"Theory v Practice" Architectural Design, 7611
 4)Alan Colquhoun:"Introduction;Modern Architecture and Historicity",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1981, MIT Press, pp.11-19
 5)Nikolaus Pevsner:A History of Building Types,Thames and Hudson, 1976
 6)Bonfanti: Elementi e Construzione: Note sull'architettura di Aldo Rossi, CONSTROPATIO, 7010